

이화여대의 교수업적평가제 : 객관적 평가기준 적용을 위한 모색

박 준 우

이화여대 화학과 교수, 교무처장



1. 도입 및 개선 배경

대학은 “국가와 인류 사회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깊은 이론과 그 광범하고 정치한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지도자를 양성하는” 최고의 교육기관이다. 교수는 대학의 양대 목적인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주체이다. 동시에 교수는 국가 사회의 최고의 전문지식인으로서 자신의 지식과 역량을 국가와 인류 사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활용하여야 할 봉사적 책무도 갖고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교수의 교육, 연구, 봉사활동에 대한 평가는 교수들의 기본 책무에 대한 이행 정도를 점검하고 독려

하며, 나아가 대학의 본연의 목적 달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화여대는 1981년부터 인사 규정에 따라 모든 교수의 연간 업적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왔다. 이 규정에서는 연구 업적이 교수업적평가의 주된 항목이었다. 1993년에 이르러서는 교수는 앞서 언급된 교육, 연구, 봉사의 3대 임무를 균형있게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이 세 분야의 업적을 평가함으로써 교수의 임무에 대한 더욱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접근을 함과 동시에, 교수들이 자신의 활동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반 세부사항을 구체화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껴 인사 규정의 개정과 아울러

러 별도의 교원업적평가 규정의 제정에 착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학은 첫째로 교육업적과 봉사활동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장차 예측되는 대학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로 연구업적평가 기준을 엄격히 하여 교수 연구 능력의 수월성을 제고하되, 전공간의 형평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수업적평가 기준은 교무처에서 그 시안을 마련하고 1년여간의 각종 공청회와 학과별 및 대학별 토론회를 통한 의견 수렴과 2차에 걸친 시범 적용을 거쳐 수정 보완되어 1995년 3월 1일을 시행일로 규정하였다. 교원 업적에 대한 평가 기준은 신입 교수의 직위 사정, 재직 교수의 승진과 재임용에 필요한 교수업적평가에 활용되고 있다.

2. 현 황

1) 업적평가의 영역

교육, 봉사, 연구 세 영역으로 평가하나, 교육과 봉사 영역의 점수는 합산되어 교육·봉사 점수로 한다.

2) 교수의 직급 및 직위, 승진 및 승급에 필요한 최저 업적 점수

본교에서는 조교수와 부교수는 각각 A와 B로 두 단계의 직급, 교수는 A·B·C 세 단계의 직급으로 되어 있다. 각 직급별 승진에 필요한 최소 연한은 교수에서는 각각 6년, 부교수 B에서 A는 3년이며, 나머지는 2년이다. 전임강사에서 조교수로의 직위 승진에는 2년이 요구된다. 각 교수의 직급 및 직위 승진에 필요한 최저 교육·봉사 점수는 재직기간중 매년 평균 1.00점으로 산정되

며, 승진이 지연되는 경우 매년 1.00점씩 추가된다. 그리고 연구업적 점수는 해당 직급에서 다음 직급으로의 승진에 필요한 점수에 해당되는 점수이다. 다만 교수 B와 A로의 승진(기준 점수 6년)은 연구 실적과 교육·봉사 점수의 합이 12.00점 이상이고 한 쪽 부분의 점수가 4.8점 이상일 때 승진이 가능하다.

3) 업적평가 시기 및 절차

모든 교원은 매년 1월에 전년도 업적에 대해 평가를 받는다. 다만, 1990학년도 이후 4월~10월에 최초 임용된 교원은 매년 7월에 과거 1년간의 업적을 평가받는다. 이를 위해 각 교원은 교원업적보고서를 학과장을 경유하여 대학장에게 제출하고 각 대학의 학장, 교학부장, 학과장 및 전공분야 교수 중 학장 위촉 교수로 구성된 대학별 연구실적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여 본부의 교원인사위원회로 제출한다. 교원인사위원회는 당해 교원의 업적 점수를 사정한다.

4) 교육·봉사 업적평가 기준

교육 및 봉사 업적의 평가 대상과 기준은 뒤의 <표 1>과 같다.

① 휴직 및 연구년 교수의 점수

공무에 따른 질병이나 학문상의 연구를 위해 휴직하는 경우와 연구년 교수의 경우는 학기당 교육·봉사 점수를 0.50점씩 인정한다.

② 기타 사항

교외 연구비 수령 점수는 연구비 규모별로 0.10, 0.15, 0.20점으로 차등화되며 그 액수는 연구 내용(실험, 조사, 이론)에 따라 차등이 있다. 봉사 부분의 기타 점수는 교원인사위원회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표 1〉 교육 및 봉사 업적평가 기준표 (의과대학 제외)

종 별	평 가 영 역	평 가 기 준	기준점수	비 고
교 육	수업담당	1년간 담당 학점		○ 학부 및 대학원(특수대학원 제외) 강좌 ○ 음대와 의대는 별도 기준으로 평가 ○ 학기당 점수 ○ 신규 개설 학사과정 강좌 ○ 교재, 보조자료 등 포함 ○ 평가서 교무처 처리 ○ 초과분 200명당 0.05, 연간 상한 0.30
		18학점 이상	0.50	
		15학점 이상~18학점 미만	0.30	
		12학점 이상~15학점 미만	0.10	
		6학점 이상~12학점 미만	0.05	
새로운 시도	내용이 다른 과목 2개 이상	0.10		
	새 교과목 개발(과목당)	0.10		
	새 교재 개발(과목당)	0.10		
강의 평가	강의 평가 여부(과목당)	0.05		
	대규모 강의	[수강학생수 × 학점수] 2000명 이상	0.05~0.30	
봉 사	학내 봉사 (학기당)	학과장급 이상의 보직	0.15~0.45	○ 책임학점 축소에 따른 교육 점수 부족 보완 포함 ○ 교사 지침서 제외 ○ 전국규모 학회 회장급 6개월 이상 재임 ○ 학교 관리 연구비 수령
	교육 봉사	고교 이하 교과서 저술	0.10~0.20	
		전공관련 학생 특별지도	0.10	
	학회 활동		0.10	
	교외 연구비		0.10~0.20	
기 타		0.10~0.20		

* 음악대학 교수의 교육과 의과대학 교수의 교육 및 봉사 평가는 별도 기준에 따름.

5) 연구업적평가 기준

이화여대는 교원의 연구업적에 대해 저술 출판 부문, 음악 부문 창작 발표, 미술 부문 창작 발표, 무용 부문 창작 발표를 구분하여 그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대부분 교수의 연구업적평가의 주된 대상인 저술 출판 부문의 평가 기준은 뒤의 〈표 2〉와 같이 요약된다.

연구업적의 평가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평가 대상 업적의 발표 시기

발간일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업적이 대상이 된다. 다만, 평가 당시에 최종 실적물이 미비된 것은 발간 기관의 '게재예정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년도 평가에서 누락된 실적은 당해 교원이 전년도 평점에

의해 승진 또는 승급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한하여 평가된다.

② 공동 연구업적의 평가

해당 연구업적의 점수에 당해 교원의 기여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개인 연구자별 기여율은 공동 연구자의 수로 분할하여 산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공동 연구자가 5인 이상인 경우는 20%로 산정한다. 자연계열의 경우, 학생이 공동 연구자에 포함된 경우는 학생을 공동 연구자 수에서 제외하나 교원 1인의 기여율은 70%를 넘을 수 없다. 공동 저서는 저자수가 5인 이하인 경우는 균등 분할, 5~9인의 경우는 20%, 10~19인의 경우는 10%, 20인 이상의 경우는 5%로 한다.

③ 자연계열 논문의 평가

〈표 2〉 저술 출판 부문 연구업적평가 기준표

종 별	평 가 내 용	기준점수	비 고
저 서	학술서	1.00~3.00	○특수하게 우수한 업적은 4.0까지 ○특수하게 우수한 업적은 4.0까지 ○전공 분야 국역에 한함 ○전공 분야 국역에 한함 ○전공분야에 한함
	대학원 교재	0.50~2.00	
	대학교재: 자연계열	0.50~1.00	
	비자연계열 교양교재	0.50~1.50	
	비자연계열 전공교재	0.50~1.80	
	외역서	1.00~2.50	
	국역서: 전공교재서	1.00~1.50	
논 문	학술전문서 및 창작서	1.00~2.00	
	시집, 소설집, 희곡집 등	0.50~1.50	
	국내 정기 간행 학술지	0.50~1.25	○최상급 학술지 게재 논문은 3.0
	국제 정기 간행 학술지	0.75~2.00	
기 타 출판물	주요학회 초청 강연문 출간	0.20	○전문학술지 게재 또는 단행본 ○심사후 수록되고 판매되는 경우 ○발표문(초록집)이 간행되는 경우
	학술대회 논문집(자연계열)	0.10~0.20	
	기간 학회의 학술대회 발표문	0.10	
	전문지 게재 논술	0.10~0.30	
	전문지 게재 문학 및 예술 평론	0.10~0.50	
	인상 중례	0.10~0.20	

자연계열의 논문은 국내와 국제 학술지 게재 논문으로 구분되며, 이들은 각각 학술지의 종류에 따라 A·B·C 세 등급으로 구분된다. 동일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라도 논문 내용과 수준에 따라 A와 B급으로 구분되며, 급간에는 0.25점의 기준 점수의 차이가 있다. 국내 학술지는 기간 학회의 기간 학술지가 A, 기타 과총 등록학회의 학술지가 B, 과총에 등록되지 않은 학회가 간행하는 학술지는 C로 분류되며, 각 학술지에 게재된 A급 논문의 점수는 각각 1.25, 1.00, 0.75점이다. 따라서 국내 학술지 게재 논문의 점수 범위는 1.25(A급 학술지 A급 논문)에서 0.50(C급 학술지 B급 논문)으로 2.5배이다. 국제 학술지는 SCI(Science Citation Index)에 등재되는 학술지를 원칙으로 학과에서 정한 학술지 등급(A급 약 30%, B급 약 40%, C급 약 30%)에 따라

A급 논문의 점수가 각각 2.00, 1.50, 1.00 점으로 주어진다. 이들 정기 간행 학술지에 게재된 경우라도 서평, 오류 수정, 독자 투고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비자연계열 논문의 평가

비자연계열의 국내·외 학술지는 각각 A와 B급으로 구분되며, 등급 가중치는 국내 학술지의 경우 1.25(A급: 전국 규모 기간 학회 간행 전문학술지), 1.00(B급: 기타 정기 간행 학술지)이다. 국제 학술지는 AHCI(Arts & Humanities Citation Index)와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에 등재된 것을 원칙으로 하며, A급은 2.00, B급은 1.50점의 등급 가중치를 두고 있다. 각 논문의 내용과 수준은 각 대학 연구업적평가위원회가 연구의 창의성(20%), 학문적 공헌도(40%), 교육적 효과(20%), 연구자 능력 개발 기여(20%)에 대해

평가하여 정한다. 최종 논문 평점은 학술지 등급 가중치에 논문 내용과 수준의 백분율을 곱하여 결정된다.

⑤ 대학학술지 및 기념논문집 게재 논문 자연계열의 경우, 이들 논문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비자연계열은 국내 B급 이하의 정기 간행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간주하며, 대략 0.60점의 등급 가중치를 준다.

⑥ 재직 교원이 제출 또는 지도한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

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⑦ 저서 및 논문집 게재 논문

저서는 저서의 수준에 따라 <표 2>의 기준점수 범위 내에서 점수를 부여하고 해당 교원의 기여율을 곱하여 평가된다. 논문집은 공동 집필 단행본으로 간주하며, 개별 논문은 0.2~0.3으로 평점한다. 다만 특별히 독자적인 우수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B급 학술지 게재 논문 이하의 점수로 평가하기도 한다.

⑧ 기타 출판물의 평점 상한

학술대회 발표문에 의한 개인별 연간 취득 점수는 0.2점 이내로 인정하며, 학술대회 논문집에 의한 취득 점수와와의 합은 0.4를 초과할 수 없다.

⑨ 보직 교수의 연구 점수 경감

보직 교수에 대해서는 교원인사위원회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에 필요한 연간 연구 실적 점수(1.0)의 20%(학과장)에서 100%(교무위원)까지 경감한다. 또한 의과대학의 임상 교수에 대해서는 30%의 연구 실적 점수를 경감한다.

⑩ 예·체능 교수의 창작 및 발표 평가

음악, 미술, 무용 부문의 예·체능 교수의 창작 및 발표도 '교원업적평가에 관한 세칙'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받는다. 창작 및 발표의 종류와 발표 기관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6) 업적평가 기준의 활용

신임 교수에 대해서는 임용시 교육 및 연구 경력 점수를 산정한다. 이는 재직 교수의 교육 및 봉사 점수의 산정에 대응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연구 실적 평가 기준에 따라 연구 실적을 평점하고, 이에 따라 직위 및 직급을 부여한다. 본교는 여러 타대학과는 달리, 초임시에 조교수 B 2년차(1년후 부교수 승진 가능) 또는 부교수 A 2년차(4년 후 교수 승진 가능) 등의 실적에 따른 직급을 부여한다.

각 재직 교수는 승진 또는 승급에 소요되는 연수에 해당되는 연구 실적 점수를 취득하고, 재직 기간중 연평균 1.0의 교육 및 봉사 점수를 취득하여야 승진 또는 승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업적 점수가 미달되어 승진이 되지 않은 경우, 소요 연구업적 점수는 변함 없으나 교육 및 봉사 점수는 매년 1.00씩 추가된다. 조교수와 부교수의 임용 기간은 각각 5년과 7년으로, 이 기간 내에 상위 직위로 승진되지 않는 경우는 현재 직위로 1년을 재임용할 수 있으며, 1년의 재임용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상위 직위로 승진 임용되지 않는 경우는 다시 재임용하지 않음이 인사 규정에 명문화되어 있다.

단과대학은 소속 교수들의 승진 및 재임용에 대해 앞서 언급한 기준 이외에 특별한 사정 기준을 부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연과학대학 소속 교수가 승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수가 책임연구자이거나 혹은 본인의 연구실에서 주도하여 수행한 연구 실적에

의한 연구업적 점수가 승진에 필요한 최저 연구 실적 점수의 50%를 상회하여야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이 있어야 하며, 임용시 연구 착수 보조금을 수혜받은 경우는 최초 승진시까지 해당 금액 이상의 교외 연구비를 수령 또는 수령 확정하여야 한다. 또한 음악, 미술, 무용 실기 전공 교수는 소속 세부실기 분야의 실기에 의한 연구 실적 점수가 승진에 필요한 최저 연구 실적 점수의 60% 이상이 되어야 승진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3. 문제점 및 발전 방향

현행 교수업적평가제는 시행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의 급격한 대학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이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교육 점수와 책임 강의시간 문제

현행 제도는 학기당 책임 학점인 9학점(3과목)을 담당하고 이 중 2과목 이상이상이하며 모두 강의 평가를 받는 경우라야 승진에 소요되는 연간 점수를, 봉사 점수가 없고 강의의 새로운 시도나 대규모 강좌를 담당하지 않고도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런데 학부제 도입,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책임 학점을 담당하지 못하는 경우는 기본 점수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 학교는 학과에서 강사를 채용하지 않고도 책임 시간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본 교육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계절 학기와 특수대학원의 담당 시간을 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신중하게 고려될 수 있다.

② 책임 강의시간의 조정 문제

현행 규정에서도 수업 경감을 받지 않은 보직 교수나, 새로운 강좌 개발, 대규모 강의 담당, 교외연구비 수혜, 기타 교내·외 봉사활동에서 점수를 얻는 경우는 교육·봉사 영역의 취득 점수가 연간 기본 점수 1.0을 상회한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교수에게는 별도 제도의 도입이 없이도 학기당 책임 시간의 축소가 가능하다. 장기적으로는 교수의 충원, 졸업학점의 하향, 학부제의 정착, 교과목 상호인정, 학부/대학원 교과목 연계 확대 등으로 전체적인 책임 시간의 축소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 때에는 교육 영역의 기준 점수의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다. 강의의 새로운 시도와 대규모 강의, 그리고 봉사 영역에서 평가 점수를 얻는 교수에게 우선적으로 강의가 경감되게 하여 교수간 차별화를 도모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③ 교육·봉사 점수와 연구 실적 점수의 호환 문제

현재 정교수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이를 타직위로도 확대하여 연구 실적이 우수한 교수에게 수업 경감의 혜택이 우선적으로 가도록 하는 제도가 검토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연구 실적 평가의 보다 객관적이고 엄정한 기준의 설정과 적용, 그리고 단순 연구 실적 점수 외에도 교외 연구비에 의한 학교 재정 기여율(대학원생 지원, 기자재 도입, 직접 및 간접 인건비 기여 등)의 반영이 필요할 것이다.

④ 연구업적 평가의 객관성

논문 수준의 평점, 학술지의 등급, 기간 학회의 정의와 객관성 등에 대해 교수간 학과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연계열은 논문 수준(A 또는 B)을 주저자와 공동저자로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기여율만 감안하

며, 인문사회계열은 앞서 언급한 4가지 평가 영역에서 5단계의 점수를 부여하나 학과간의 차이가 큰 편이다. 인문사회계열은(정기 간행) 전문학술지의 정의가 잘 확립되어 있지 않은 듯하며, 자연계열은 학과 교수들의 주관에 의해 학술지 등급이 정해지는 경향이 강한 편이다. 이에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착수한 학술지의 등급화에 큰 기대를 걸며, 비록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나, 자연계열은 SCI의 JCR(Journal Citation Report)의 impact factor를 기준으로 한 국제 학술지 등급화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저서도 대학교육의 보편화와 일반화에 따라 학술서, 대학 및 대학원 교재, 일반 교양서의 구분이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 이에 저서의 학문적 가치와 창의성에 대한 평가 기준의 도입이 요망된다. 또한 기간 학회를 정할 때 학과명이나 광역 전공분야명으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의 학회, 학회의 규모와 학술 활동 등의 관점에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⑤ 기타 업적 평가의 개선 방향

교육 영역의 평가에서 학부 및 대학원생의 지도 실적을 반영시키는 것, 전공별 및 대학별 업적 평가 점수의 차등을 해소시키는 것, 그리고 연구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신입 교수의 부임 후 초기 1~2년간 연구업적의 과소를 감안하는 것 등이 성

공적인 교수업적평가제의 정착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여겨진다.

⑥ 업적 우수 교수의 포상 문제

현재의 인사 규정은 교육부의 시행령에 따라 교수의 각 직위에서 상위 직위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소 연수를 명기하고 있다. 이 최소 연수는 내년부터 대학의 자율에 맡겨질 전망이다. 이 때에는 각 직위에서 일정 이상의 연구 실적 점수와 교육 및 봉사 실적 점수를 취득한 교수는 현행 최소 승진 연한 이전에도 승진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교내 연구비 배정이나 연구 여건 개선, 그리고 앞서 ②와 ③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교수 책임 강의시간의 경감을 업적 평가 점수가 우수한 교수에게 우선 실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

박준우/서울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템플 대학에서 물리화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Eye Research Institute of Retina Foundation과 한국화학연구소의 연구원을 거쳐 1981년 이후 지금까지 이화여자대학교 화학과에 재직하고 있다. 동 대학의 기초과학연구소장과 자연대학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교무처장을 맡고 있다. 대한화학회 학술진보상(1991년)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우수논문상(1994년)을 수상하였으며,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이다.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초본자 및 분자회합계의 화학에 대한 7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